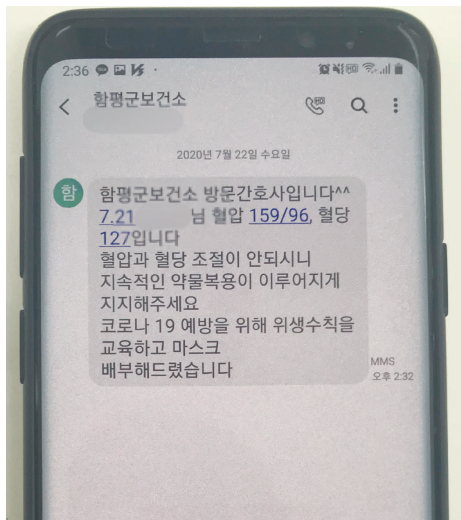


함평군보건소 ‘부모 건강 알리미 서비스’ 호평



독거노인세대 간호사 직접 방문해 기초건강검진 실시 검사결과 자녀에 문자 발송...원거리 자녀들 문의 급증

함평군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부모 건강 알리미’ 서비스(사진)가 지역에 홀로 사는 부모를 둔 타 지역 자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3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보건소 방문보건 간호사가 지역 독거노인세대를 직접 방문해 혈

압·혈당 등 기초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해당 자녀에게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보건소는 지역독거노인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 1월 처음 실시했다. 현재까지 지역독거노인 가구의 절반 수준인 약 500여 세대에서 해

당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터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부모 집에 자주 방문할 수 없는 원거리 자녀들을 중심으로 최근 서비스 신청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홀로 사는 부모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자녀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부모 건강 알리미 서비스가 어려운 이들에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함평=김평춘 기자



장흥군, ‘코로나 이중고’ 장애인 가정 안부살피기

장흥군은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안마사업 수혜가정을 찾아 백숙용 닭과 과일을 전달했다. 장흥군은 2018년 7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사지마비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주1회 안마, 주2회 반찬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안마사업이 중단되면서 반찬도 비대면식으로 전달되고 있다. 군은 중복을 맞아 백숙용 닭(재료 포함)과 과일(종합사회복지관 협찬)을 정성껏 준비하여 무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대상자들에게 힘을 북돋았다.

전남, 건강·주거·돌봄 통합복지서비스 탄력 여수·곡성 공모 선정

전남 여수와 곡성이 ‘건강·주거·돌봄’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공모에 2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8개 시·군·구 선정 지자체 중 전남이 2개로 최다다. 사업비는 1개 시·군당 총 사업비 5억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진되며, 국비는 각각 2억 9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씩 지원된다.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보건복지 원스톱 상담센터 설치를 비롯 민관 협력 종합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확충 등 이용자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인에게 AI 기술로 목소리 찾아준 KT... ‘마음톡’ 앱 개발

텍스트를 목소리로 바꿔 전화...4월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해 AI 기술로 목소리 구현

KT가 ‘목소리 찾기’ 프로젝트로 탄생한 세상에 하나뿐인 목소리를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참가자의 목소리는 가족들의 노력과 KT의 인공지능 기술로 완성됐다. 목소리 찾기는 청력을 잃었거나 사고나 질병 등으로 후천적으로 목소리를 잃은 농인의 목소리를 만들어 주는 프로젝트다. KT는 지난 4월 참가자 20명을 선발하고 목소리 구현에 들어갔다. KT는 국내 최고 수준의 개인화 음성합성기술(P-TTS)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화 음성합성기술은 딥러닝 기반 학습을 통해 사람의 목소리를 만드는 기술이다. 이번 목소리 찾기 프로젝트에서 KT는 국내 최초로 본인 목소리 학습 데이터 없이 목소리를 구현했다. 기존 음성합성기술은 한 문장이라도 본인 목소리 녹음이 필요했으나, KT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농인들을 위해 가족 목소리 데이터를 이용해 목소리를 만들었다. 참가자의 목소리는 참가자 동성 가족의 음성 데이터에 참가자만의 음색, 어조, 말투가 반영됐다. 각 참가자의



동성 가족 구성원들은 참가자의 목소리 구현을 위해 1000개의 문장을 녹음했고, 인당 평균 6시간이 소요됐다. KT는 참가자들이 구현된 목소리로 언제나 소통할 수 있도록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음톡(이하 마음톡)’을 개발했다. 마음톡은 목소리 찾기 참가자와 그 가족·지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마음톡의 기능 중 ‘내 목소리 음

성·영상통화’ 이용하면 농인은 문자를 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상대방은 일반 음성통화하는 것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음성통화 중간에 통화를 끊지 않고 영상통화로 전환이 가능해 수어와 목소리를 함께 사용해 소통할 수 있다. KT는 앞으로 2년 동안 전용 앱을 지원하고, 사용자의 불편함을 점검해 지속적으로 앱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녹색자금 지원사업 선정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20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실내)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에 나선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복권 판매 수익금을 재원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에 복지관은 총사업비 8천만원을 확보해 목재를 이용한 강당 리모델링이 예정이며 현재 목재문화진흥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시설에 용역이 진행 중이다.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미란 관장은 “30년이 넘는 노후건물로 장애인 및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으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어 매우 기쁘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